

한국 청소년의 지위비행·범죄행위에 대한 종단분석*

이현철 김경식 최성보†
고신대학교 교수 경북대학교 교수 한양대학교 강사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데이터 2003년도(1차)~2007년도(5차)의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내·외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의 비행의 종단적 변화의 패턴을 지위비행과 범죄행위로 세분화하여 탐색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 청소년들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는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는 특별히 이차곡선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예측변인을 포함하는 분석에서 청소년 지위비행의 경우 가정수준의 부모관계가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학교수준의 교사관계와 학업성취는 지위 비행의 초기치에만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교우관계는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 범죄행위의 예측변인을 포함하는 모형 분석에서는 개인수준의 자아관이 초기치에, 가정수준의 부모관계가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학교수준의 교사관계와 학업성취가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 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교우관계는 초기치, 변화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주요어: 청소년, 지위비행, 범죄행위, 종단분석, 또래관계, 청소년 상담

* 본 논문은 제5회 한국청소년패널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한양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Email: csb9150@mest.go.kr

서론

최근 청소년 비행에서 나타나는 낮은 비행연령수준, 반사회적인 양상, 유사 및 동일 범죄 발생 비율 증가, 복합적인 비행 등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문제를 경감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및 인권 측면의 강화와 청소년 문제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위한 다양한 수준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김두섭, 민수홍, 1996; 김경식, 이현철, 2007; 정소희, 2007, 2009; 문상식, 문재우, 2011; 박진희, 김현주, 2012).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요인들을 개인, 가정, 학교, 동료 혹은 사회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 개인적 수준은 행위자의 내재적 특성에 초점을 두어 성격, 신체, 유전 요인 등 같은 개인차 요인으로 보고 있다. 둘째로 가정 및 학교 수준은 외재적 요인에 초점을 두는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부모의 배경, 부모와의 사회심리학적 관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 수준은 학업 성취, 학교 비선호 및 낮은 애착, 학습과 관련된 무능력, 학교에서의 왜곡된 활동과 경험 등과 깊은 관계를 지니며 이외에도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학생들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료 수준의 영향은 비행하위문화이론이나 문화전달이론 등을 통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비행교우의 영향력을 설명력 있게 시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비행은 특정 영역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앞서 언급한 개인, 가정, 학교, 동료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착안하여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소개되고 있다(김경식, 이현철, 2007).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되는 요인들이 도출되고는 있지만 방법론적인 제약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비행과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정교히 분석해내는 것에는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횡단적(cross-sectional) 연구 설계를 사용함으로써 과거 청소년들의 선행적으로 획득한 삶의 수준과 비행 정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게 제시되고 있어 학생들의 내·외적인 특성에 따른 비행의 종단적인 변화를 엄격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변인과 청소년 비행 간의 인과적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주요 변수들의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영향력의 크기와 청소년 비행의 변화 또는 증가(또는 감소)정도에 대한 영향력의 크기를 구분해 내지 못하는 결정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물론 최근 정소희(2009)와 박현수(2011) 등과 같은 연구자들에 의해 꽤 널 자료를 활용한 종단적인 분석이 시도되어 고무적이지만 그 양적인 수준에 있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그들의 연구 역시 좀 더 세분화되고 종단적인 성격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연구가 적용되었어야 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정소희의 연구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지위비행과 범죄행위 구분 없이 일괄적

으로 단일한 종속 변수로 모형에 투입하고 있으며, 예측변인을 포함하는 모형 설정에 있어서도 종속변수의 변화만을 추적하고 있어 좀 더 종합적인 종단적인 분석의 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년도(1차)~2007년도(5차)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설계의 구조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학생의 내·외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의 비행의 종단적 변화의 패턴을 지위비행과 범죄행위로 세분화하여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청소년 비행의 영향요인과 발달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단적인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하게 해주어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내용들을 좀 더 거시적인 맥락에서 확인시켜줄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논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

청소년의 지위비행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Senna(2000)은 지위비행을 청소년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정의하고, 부모에게 반항, 흡연과 음주, 무단결석 및 교사에 대한 반항, 비행또래와의 접촉, 가출, 성행위 등으로 지위비행을 분류하였다. 국내에서는 송아영, 박경나와 정세영(2009)도 Senna의 방향성 속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인 음주, 흡연, 가출, 결석 등을 지위비행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황성현(2010)은 조금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위비행을 살펴주고 있는데 청소년기에 호기심이나 주위의 친구들의 유희에 못 이겨 한 두 번 하는 음주나 흡연 행위는 비행으로 보지 않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한 경우만 지위비행으로 보았으며, 무단결석과 가출은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음주와 흡연처럼 지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을 강조하여 지위비행을 설명하여 흥미롭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지위비행의 정의에 따른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있으나 광의적인 차원에서 성인이 되어 하는 행동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청소년기에 하면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미선, 2014). 이런 지위비행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흡연과 음주, 그리고 현재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충동에 의해 일어나게 되는 가출과 무단결석, 음란물 접촉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지위비행은 이후의 범죄행위로 나아가는 도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할 때 쉽게 간과할 수 없으며(황성현, 2012), 이에 대한 관심과 개선 방안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년법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는데 소년법에서는 12이상 20세 미만의 범죄 및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상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에 적용에 따라 범죄소년, 우범소년, 촉범소년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소년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대상이며, 촉범소년은 형법법력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대상이며, 우범소년은 장래 형법법력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을 대상한다(이하섭, 조현빈, 2011). 청소년들의 지위비행과 달리 범죄행위는 소년법 적용을 받으나 성인들의 일반범죄행위와는 처벌적 기준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그들의 범죄행위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먼저 흡연과 음주는 비행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는 중요한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신체적 건강문제로 야기되기 때문에 주의력 결핍, 학습장애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의 음주는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폭행이나 교통사고 등의 더 큰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문화일보, 2012). 또한 청소년들의 가출과 무단결석의 측면도 범죄행위와 연결이 되는데, 청소년들의 단순한 무단결석과 결석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무단결석과 가출이후 비행친구와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형태의 범죄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 약물남용, 폭력, 조기 성관계, 절도 등과 같은 다른 범죄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정혜원, 박운환, 2012). 이를 테면 무단결석 및 가출 청소년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나 성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 이는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음란물 접촉 역시 지위비행의 주요한 측면이며, 그들의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지하고 있듯이 청소년들은 성에대한 정보를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손쉽게 자료와 내용들을 접할 수 있으며, SNS를 통해 동료간 유통도 편리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음란물의 지속적인 노출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에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시킬 있으며, 왜곡된 성적 취향과 폭력성 등을 고취하여 사회적 범죄행위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던 다양한 아동 성범죄 사건들(예: 2011년 일명 도가니 사건, 2012년 통영과 나주 사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동 성범죄자들의 중 상당수가 왜곡된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시청한 것을 고려할 때 음란물 시청과 관련된 지위비행은 범죄행위와의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보여진다(윤정숙, 2012).

2. 청소년 일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유형별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지위비행과 범죄행위의 높은 상관성 속에서 지위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범죄행위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유사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개인수준, 가정수준, 학교와 사회적 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 수준에서 청소년들의 불안 의식이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신체와 정서가 급변하는 과도기적 과정에 있는 단계이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또래관계, 장애, 가족문제 등의 측면에서 불안을 가질 수 있다. 장애경과 이지연(2010)은 특별히 가정폭력에 의해 생긴 불안감이 청소년기에 교우관계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가출을 선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한 불안한 감정도 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폭력을 회피하고자 등교거부, 무단결석 등의 기회가 늘어날 수밖에 없음도 예상할 수 있다. 더 본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의 수준도 청소년들의 비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비행 연구에 있어 자아존중감은 비행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의 비행성향은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이미 검증되어 왔다(김경식, 이현철, 2007; 정소희, 2009).

다음으로 가정 수준의 요인들도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나 부모의 양육태도와 폭력적 행위는 청소년들의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우선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음주 및 흡연을 통해 부모에게 당했던 가정폭력의 피해를 위안 받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으며(Horwitz, Hill, & Cheryl, 2011), Clark, De Bellis, Lynch, Cornelius와 Martin(2003)도 청소년기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폭력을 경험한 이들이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가정에서의 폭력이 지속되면 그 가정폭력을 회피하기 위해 가출을 선택하게 되는 악순환적 상황도 묘사되고 있다. 게다가 부모의 폭력과 무관심은 자녀들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과도 연계되어 청소년들이 쉽게 인터넷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과 접촉빈도가 높아져 결국 지위비행의 기회가 증가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제시되기 하였다(남영옥, 2004). 이러한 부모의 양육적 특성과 맥락은 결국 부모관계라는 큰 그림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성과 그에 준하는 청소년들의 비행적 행위에 대한 관심이 접근을 요청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부모과 기능적인 관계나 애착을 형성치 못하였을 경우 그들의 자녀들이 비행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Demuth & Brown, 2004). 이처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회적 지위 구성원은 부모이며, 부모가 청소년에 대해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와 청소년의 성장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노력 등이 청소년 시기에 하게 되는 문제행동들을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최성열, 2001).

한편,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가정 이외의 요소로서 학교와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의 학교성과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착, 교사와의

기능적인 관계, 학교 내 정서적 긴장감 등이 청소년의 비행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정소희, 2009). 특히 관계성의 중요성을 Sampson과 Laub(1993)을 통해서 더욱 확인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비행을 비공식적 사회통제 혹은 사회적 유대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와 동료와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의 핵심적인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와 청소년들과의 관계가 치밀할수록 청소년들은 학교 적응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며(오윤심, 최은영, 2012), 청소년들의 비행을 통제하는데 긍정적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맥락으로 김미선(2014)은 친구의 지지가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며, 친구들의 지지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충동성이 낮아 비행을 적게 한다고 제시해주었으며, 김경식과 이현철(2007)도 비행청소년들과의 접촉 혹은 관계의 질의 중요성을 제시해주었다. 이외에도 최근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단기적인 학교폭력의 경험도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지속적인 학교폭력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걱정, 슬픔, 긴장, 두려움과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하여 이 스트레스에서 회피하고자 청소년들이 비행에 가담 할 수 있다는 측면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송정희 등(2012)은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등교거부, 무단결석 등의 지위비행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해자 학생들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이 생겨 폭력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보고하여 전술한 사항에 대한 확증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방법

1. 분석자료와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년도(1차)~2007년도(5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2003년도 연구대상은 남 1,725명, 여 1,724명 총 3,449명이며 이 표본을 중심으로 2, 3, 4, 5차년도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2003년도와 그 이후 패널이 포착된 자료를 활용함은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데이터의 문항이 지위비행과 범죄행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종단자료의 특성상 청소년들의 시간의 경과와 발달적 궤적 속에서 초기 시점의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차년도 부터의 자료가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초기시점의 자료들이 핵심적으로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1차년도 자료를 포함하는 5차년도까지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표 1> 한국청소년패널(KYPS) 연구 대상

	남학생	여학생	합계	
2003년	1,725(50.0%)	1,724(50.0%)	3,449(100%)	
2004년	1,594(46.2%)	1,594(46.2%)	3,188(92.4%)	
중2패널	2005년	1,572(45.6%)	1,553(45.0%)	3,125(90.6%)
	2006년	1,566(45.4%)	1,555(45.1%)	3,121(90.5%)
	2007년	1,510(43.8%)	1,457(42.2%)	2,967(86.0%)

2.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하여, 연구문제와 관련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잠재성장모형은 종단적인 분석에 유용한 접근법으로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인 수준의 발달적인 변화와 개인 간 변화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탐색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이기봉, 박일혁, 2001; Bollen & Curran, 2006).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잠재성장모형의 형태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반복 측정된 변수 Y에 대하여 α 는 개인의 초기값을 나타내는 수치고, λt 시간단위의 기본 수치이며, β 는 변화율 즉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변화 정도이다. 또한 ϵt 는 관찰되지 않는 각 시점의 측정 오류를 나타낸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기본형: $Y_t = \alpha + \lambda_t \beta + \epsilon_t$]

1차년도: $Y_{t1} = \alpha + \lambda_{t0} \beta + \epsilon_{t1}$

2차년도: $Y_{t2} = \alpha + \lambda_{t1} \beta + \epsilon_{t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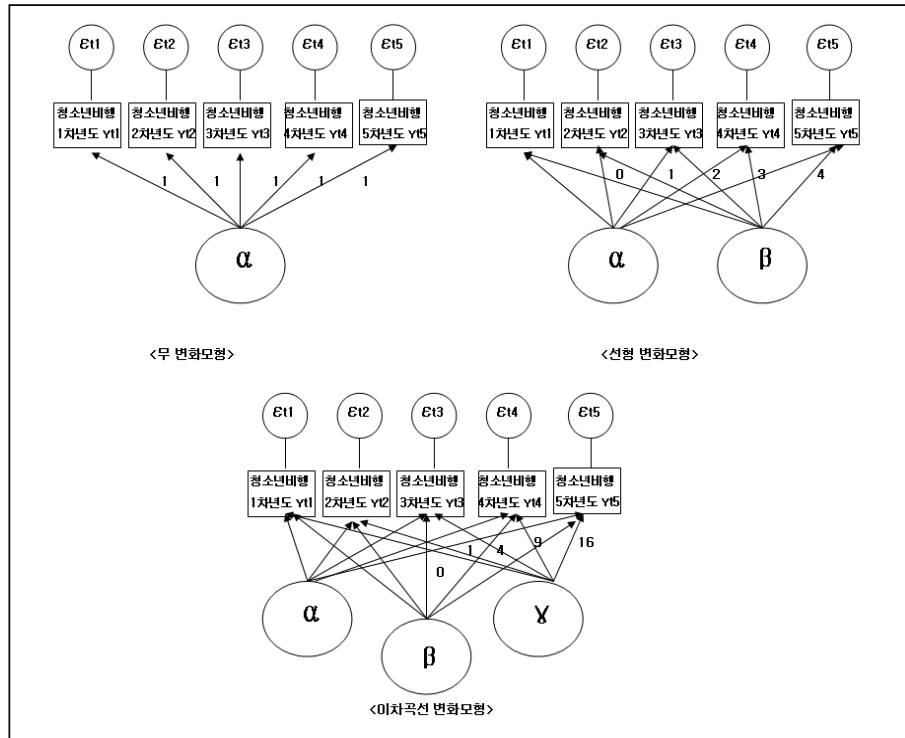
3차년도: $Y_{t3} = \alpha + \lambda_{t2} \beta + \epsilon_{t3}$

4차년도: $Y_{t4} = \alpha + \lambda_{t3} \beta + \epsilon_{t4}$

5차년도: $Y_{t5} = \alpha + \lambda_{t4} \beta + \epsilon_{t5}$

[그림 1] 잠재성장모형 수식

청소년비행으로 설정한 항목은 지위비행과 범죄행위로 구분하였으며, 지위비행에는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놀리기, 왕따시키기, 성관계를 범죄행위에는 폭행, 패싸움, 뺑뜨기, 절도, 원조교제, 성범죄, 협박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행위에 대한 경험 유무를 합산하여 지위비행과 범죄행위를 각 연도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종합 모형은 지위비행과 범죄행위를 합산하였다.



[그림 2] 잠재성장모형 유형

3. 한국청소년패널(KYPS) 측정문항 및 변수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KYPS) 중학교 설문지 문항들 중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범죄 행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가정, 학교 수준의 대표적인 변수들을 설정하고 있으며, 자아관, 부모관계,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업성취 요인들에 부합되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표 2> 한국청소년패널(KYPS) 문항 내용

요 인	문항 내용
개인 수준 자아관	나는 나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다.

요 인		문항 내용
가정 수준	부모 관계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학교 수준	교사 관계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다.
		나는 장래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있다.
	교우 관계	나는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학업 성취	나는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학업 성취	과목별 성적정도(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각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들의 신뢰도는 표 3에 제시되었듯이 모두 양호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종속변인 지위비행과 범죄행위의 경우 질적인 범주형 문항으로 인해 Cronbach α 를 계산하지 않았다.

<표 3> 본 연구의 연도별 신뢰도

요 인	신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부모관계	.801	.838	.833	.843	.843
교사관계	.702	.725	.734	.782	.798
교우관계	.759	.829	.824	.819	.822
학업성취	.790	.799	.694	.389	.663
자아관	.734	.741	.752	.755	.763

4. 결측치 분석 및 처리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의 경우 결측치가 존재하고 있으며, 중단분석에 있어 결측치 사항의 경우 소홀하게 대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결측치와 관련된 본 연구의 전략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결측치와 변수들간의 관계성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유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결측치와 통계적 관계가 있는 요소들이 확인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와 지위비행이었으며, 다른 변수들은 결측치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이를 통해 자료의 결측이 학업성취, 지위비행과 관련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연구자가 해당

사항을 간과하고 결측치를 제거하는 것은 주요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FIML(Full Information ML estimation)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4> 결측치 분석 사항

	<i>B</i>	<i>S.E.</i>	<i>Wald</i>	<i>df</i>	<i>p</i>	<i>Exp(B)</i>
자아관	.001	.012	.013	1	.910	1.001
부모관계	-.002	.014	.019	1	.890	.998
교사관계	-.014	.017	.628	1	.428	.987
교우관계	.025	.016	2.572	1	.109	1.025
학업성취	.030	.011	7.448	1	.006	1.031
지위비행	-.161	.041	15.094	1	.000	.852
범죄행위	.048	.060	.643	1	.423	1.050
상수	1.288	.542	5.648	1	.017	3.625

5.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표 5와 같이 중학교 1-5학년도 자료에서 측정된 요인들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부모관계, 교사관계, 교우관계, 자아관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학업성취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왜도와 첨도를 통해서 정상분포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절대값 3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활용된 변인들의 경우 모수추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기술통계량

	요인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중2학년(1)	부모관계	3447	13.3536	3.12869	-.224	.053
	교사관계	3445	7.3768	2.47361	.157	-.126
	교우관계	3436	16.2197	2.61933	-.550	.626
	학업성취	3449	15.5503	3.89052	.070	-.181
	자아관	3444	18.9666	3.73735	.058	.627
중3학년(2)	부모관계	3182	13.6502	3.07824	-.162	.149
	교사관계	3184	7.8361	2.47161	.001	-.150
	교우관계	3176	16.6499	2.68215	-.581	.420
	학업성취	3178	15.5743	3.90044	.110	-.005
	자아관	3187	19.6021	3.76639	.305	.672

한국 청소년의 지위비행·범죄행위에 대한 종단분석

요인	N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고1학년(3)	부모관계	3119	13.7599	2.90987	-.206	.310
	교사관계	3121	7.8917	2.44185	.011	-.150
	교우관계	3108	16.9710	2.52017	-.769	1.217
	학업성취	3047	15.1995	3.28283	.271	.662
	자아관	3122	19.9110	3.62594	.099	.582
고2학년(4)	부모관계	3120	13.9045	3.02493	-.272	.237
	교사관계	3077	7.9272	2.61098	.054	-.269
	교우관계	3119	16.9218	2.50509	-.526	.165
	학업성취	3077	13.6185	3.31545	.173	.636
	자아관	3121	20.0205	3.67357	.129	.260
고3학년(5)	부모관계	2958	14.1163	3.05036	-.182	.071
	교사관계	2905	7.8265	2.68814	.010	-.438
	교우관계	2955	17.0782	2.48754	-.558	.081
	학업성취	2014	14.8893	3.13722	.204	1.179
	자아관	2958	20.5304	3.69366	.126	.239

한편, 본 연구에서 투입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는 표 6과 같으며, 각 연도에 따른 변수들의 상관정도를 확인 할 수 있다.

<표 6> 상관관계

	1	2	3	4	5	6	7
중2학년 (1)	자아관	1					
	부모관계	.327(**)	1				
	교사관계	.198(**)	.259(**)	1			
	교우관계	.050(**)	.150(**)	.068(**)	1		
	학업성취	.307(**)	.217(**)	.173(**)	.080(**)	1	
	지위비행	-.178(**)	-.156(**)	-.152(**)	.091(**)	-.180(**)	1
	범죄행위	-.119(**)	-.121(**)	-.113(**)	.034(*)	-.128(**)	.544(**)
중3학년 (2)	자아관	1					
	부모관계	.251(**)	1				
	교사관계	.113(**)	.183(**)	1			
	교우관계	.116(**)	.172(**)	.103(**)	1		
	학업성취	.281(**)	.195(**)	.106(**)	.060(**)	1	
	지위비행	-.122(**)	-.130(**)	-.077(**)	.092(**)	-.168(**)	1
	범죄행위	-.078(**)	-.101(**)	-.044(*)	.029	-.081(**)	.560(**)

		1	2	3	4	5	6	7
고1학년 (3)	자아관	1						
	부모관계	.312(**)	1					
	교사관계	.125(**)	.171(**)	1				
	교우관계	.091(**)	.207(**)	.055(**)	1			
	학업성취	.250(**)	.205(**)	.165(**)	.027	1		
	지위비행	-.130(**)	-.157(**)	-.080(**)	.060(**)	-.152(**)	1	
	범죄행위	-.100(**)	-.064(**)	-.043(*)	.027	-.038(*)	.463(**)	1
고2학년 (4)	자아관	1						
	부모관계	.275(**)	1					
	교사관계	.163(**)	.177(**)	1				
	교우관계	.123(**)	.144(**)	.046(*)	1			
	학업성취	.201(**)	.147(**)	.136(**)	.000	1		
	지위비행	-.088(**)	-.131(**)	-.078(**)	.112(**)	-.137(**)	1	
	범죄행위	-.048(**)	-.041(*)	-.033	.035	-.037(*)	.415(**)	1
고3학년 (5)	자아관	1						
	부모관계	.319(**)	1					
	교사관계	.125(**)	.185(**)	1				
	교우관계	.177(**)	.220(**)	.091(**)	1			
	학업성취	.234(**)	.157(**)	.192(**)	.036	1		
	지위비행	-.081(**)	-.159(**)	-.057(**)	.042(*)	-.217(**)	1	
	범죄행위	-.027	-.047(*)	-.010	.010	-.085(**)	.378(**)	1

* $p < .05$ ** $p < .001$

연구 결과

1. 분석결과

가. 청소년 비행의 변화 함수와 영향을 주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평균 및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변화의 양상을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그리고 이차곡선변화모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1) 지위비행의 변화 함수와 영향을 주는 요인

표 7의 잠재성장모형의 분석결과를 통해 무변화모형은 선형과 이차곡선 모형에 비하여 x^2 값이 컸으며, x^2 값 대신 활용할 수 있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

역시 .08 보다 높아 양호한 모형으로 판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의 평균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 무 변화 모형보다는 변화를 가정한 모형이 설명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표

모형	χ^2	TLI	CFI	RMSEA
무 변화모형	773.448(13)	.987	.989	.130
선형 변화모형	383.474(10)	.992	.995	.104
이차곡선 변화모형	75.469(6)	.997	.999	.058

선형 변화 모형은 무변화 모형에 비해 χ^2 값이 줄어들었으며,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또한 양호하였으나 RMSEA 값이 높아 불안정하며, 이차곡선적인 변화를 가정하는 이차곡선변화 모형이 선형모형과 비교하여 적합도와 실제 자료의 평균 변화에 있어서 우수한 모형을 판정된다. 연구모형으로 확정된 이차곡선변화모형은 무변화 모형과 비교하여 χ^2 값이 적었으며, TLI값과 CFI값도 양호하였으며, RMSEA값 역시 .08 보다 작아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적합한 모형으로 설정된 이차곡선 변화모형의 초기값과 변화율, 이차곡선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표

항목	평균	표준오차	변량	초기치-변화율 상관	변화율-이차곡선 상관	초기치-이차곡선 상관
초기치	6.805**	.019	.838**			
변화율	-.193**	.016	.277**	-.566**	-.898**	.387**
이차곡선	.054**	.004	.011**			

* $p < .05$ ** $p < .001$

청소년 지위비행의 초기치 평균은 6.805($p < .001$), 변량은 .838($p < .001$)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위비행의 경우 초기치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율은 -.193로 나타나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감소하는 맥락이며, 변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변화 정도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이 -.566($p < .001$)로 부적으로 나타나 1차년도의 지위비행의 크기가 높을수록 지위비행이 더디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이 감소하지만 초기치-변화율 간의 상관관계(부적상관)로 인해 1차년도의 청소년 지위 비행의 크기가 높았던 청소년들은 이후로 갈수록 지위비행의 감소 폭이 느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위비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지위비행의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투입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2)

<표 9> 지위비행 영향 요인

요 인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 요인
개인수준	자아관	.075	.031	-.008
가정수준	부모관계	-.189**	.059*	-.010*
	교사관계	-.194**	.040	-.003
학교수준	교우관계	.236**	-.093**	.018*
	학업성취	-.236**	.016	-.007
적합도		$\chi^2(df)$	<i>TLI</i>	<i>CFI</i>
		5364.164(312)	.978	.982
				<i>RMSEA</i>
				.068

* $p < .05$ ** $p < .001$ / 비표준화 계수

표 9를 통해 청소년 지위비행의 경우 가정수준의 부모관계가 해당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 변화 요인에 각각 $-.189(p < .001)$, $.059(p < .05)$, $-.010(p < .05)$ 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학교수준의 교사관계와 학업성취는 지위 비행의 초기치에만 각각 $-.194(p < .001)$, $-.236(p < .001)$ 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교우관계는 $.236(p < .001)$, $-.093(p < .001)$, $.018(p < .05)$ 로 각각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다.

(2) 범죄행위의 변화 함수와 영향을 주는 요인

청소년 범죄행위 변화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 표 10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차곡선적인 변화를 가정하는 이차곡선변화 모형이 다른 모형과 비교하여 적합도와 실제 자료의 평균 변화에 있어서 설명력이 높아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를 설명하는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2) 지위비행의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투입된 자료는 청소년패널 1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설정된 모형이 적합하다고 평가되었으므로 해당 추정치를 확인해야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관-자아1: 1, 자아2: $.553(p < .001)$, 자아3: $.812(p < .001)$, 자아4: $2.095(p < .001)$, 자아5: $1.991(p < .001)$, 자아6: $1.444(p < .001)$; 부모관계-부모1: 1, 부모2: $.883(p < .001)$; 부모3: $.839(p < .001)$; 부모4: $.770(p < .001)$; 교사관계-교사1: 1, 교사2: $1.125(p < .001)$, 교사3: $.771(p < .001)$; 교우관계-교우1: 1, 교우2: $.920(p < .001)$, 교우3: $1.114(p < .001)$, 교우4: $1.034(p < .001)$; 학업성취: 학업1: 1, 학업2: $.883(p < .001)$, 학업3: $1.069(p < .001)$, 학업4: $.940(p < .001)$, 학업5: $.614(p < .001)$ 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표 10>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표

모형	χ^2	TLI	CFI	RMSEA
무 변화모형	1076.784(13)	.986	.988	.153
선형 변화모형	325.730(10)	.995	.996	.095
이차곡선 변화모형	109.844(6)	.997	.999	.071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된 이차곡선 모형의 경우 무변화 모형에 비해 χ^2 값이 줄었으며, TLI, CFI 모두 양호하였으며, RMSEA 값도 .08 보다 작아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적합한 모형으로 설정된 이차곡선 변화모형의 초기값과 변화율, 이차곡선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표

항목	평균	표준오차	변량	초기치-변화율 상관	변화율-이차곡선 상관	초기치-이차곡선 상관
초기치	6.302**	.012	.288**			
변화율	-.144**	.010	.102**	-.817**	-.958**	.640**
이차곡선	.021**	.002	.003**			

* $p < .05$ ** $p < .001$

청소년 범죄행위의 초기치 평균은 6.302($p < .001$), 변량은 .288($p < .001$)로 청소년들의 범죄행위의 경우 초기치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변화율도 -.144로 나타나 5년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며, 변화율의 변량도 .102($p < .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범죄행위의 변화 정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이 -.144($p < .001$)로 부적으로 나타나 초기 시점의 범죄행위의 크기가 낮았던 학생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즉, 2, 3, 4, 5차년도로 갈수록 범죄행위의 크기가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기치와 이차곡선 요인이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범죄행위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그 가속도는 커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청소년의 범죄행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변화의 주요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투입한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³⁾

3) 지위비행의 모형과 동일하게 청소년의 범죄행위 변화의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투입된 자료는 청소년패널 1차년도 자료이다. 모수추정치의 경우 다음과 같다. 자아관-자아1: 1, 자아2: .541($p < .001$), 자아3: .803($p < .001$), 자아4: 2.052($p < .001$), 자아5: 1.967($p < .001$), 자아6: 1.408($p < .001$); 부모관계-부모1: 1; 부모2: .884($p < .001$); 부모3: .838($p < .001$); 부모4: .769($p < .001$); 교사관계-교

아래의 표 12를 통해 청소년 범죄행위의 경우 개인수준의 자아관이 초기치에 .080($p<.05$)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가정수준의 부모관계가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요인에 각각 -.102($p<.001$), .068($p<.001$), -.011($p<.001$)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학교수준의 교사관계와 학업성취가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 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우관계는 .082($p<.001$), -.037($p<.05$)로 각각 초기치, 변화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2> 범죄행위 영향 요인

요 인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 요인
개인수준	자아관	.080*	-.042	.010
가정수준	부모관계	-.102**	.068**	-.011**
	교사관계	-.099**	.052**	-.008*
학교수준	교우관계	.082**	-.037*	.007
	학업성취	-.115**	.047*	-.007*
적합도		$\chi^2(df)$ 4760.539(311)	TLI .982	CFI .985
				RMSEA .064

* $p<.05$ ** $p<.001$ / 비표준화 계수

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s) 분석

종단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각 요인의 변화에 대하여 무변화, 선형, 이차곡선 변화 모형을 적용시킨 결과 다음 표 13과 같으며, 앞선 평균의 실제적인 변화 측면과 다양한 적합도 지수와의 변화를 확인 결과, 자아관과 학업성취 그리고 부모관계는 이차곡선 변화모형으로 결정하였으며, 교사관계, 교우관계는 선형변화 모형을 선택하였다.

<표 13> 요인 별 모형의 적합도

잠재성장모형		$\chi^2(df)$	TLI	CFI	RMSEA
자아관	무변화모형	604.912(13)	.988	.990	.114
	선형변화모형	77.731(10)	.998	.999	.044
	이차곡선변화	36.890(6)	.999	.999	.038
부모관계	무변화모형	377.512(13)	.992	.993	.090
	선형변화모형	72.785(10)	.998	.999	.042
	이차곡선변화	19.425(6)	.999	1.000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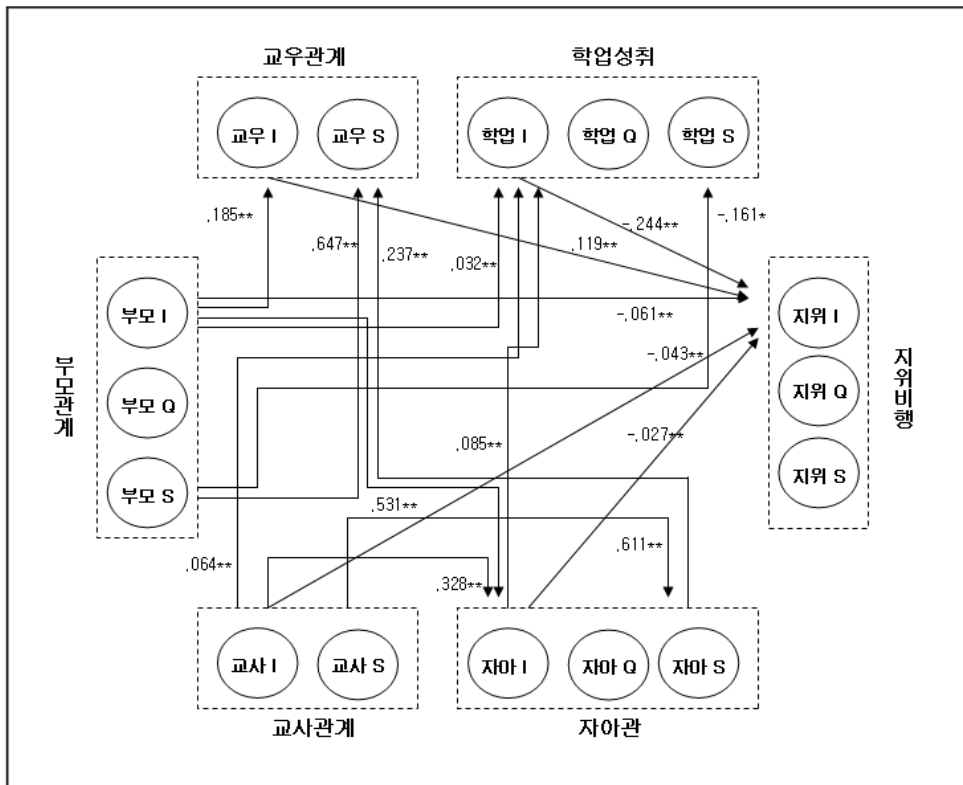
사1: 1, 교사2: 1.123($p<.001$), 교사3: .774($p<.001$); 교우관계-교우1: 1, 교우2: .924($p<.001$), 교우3: 1.120($p<.001$), 교우4: 1.039($p<.001$); 학업성취: 학업1: 1, 학업2: .878($p<.001$), 학업3: 1.063($p<.001$), 학업4: .942($p<.001$), 학업5: .616($p<.0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한국 청소년의 지위비행·범죄행위에 대한 종단분석

	잠재성장모형	$\chi^2(df)$	TLI	CFI	RMSEA
교사관계	무변화모형	220.631(13)	.994	.995	.068
	선형변화모형	98.210(10)	.997	.998	.050
	이차곡선변화	23.075(6)	.999	1.000	.029
교우관계	무변화모형	419.968(13)	.992	.993	.095
	선형변화모형	85.778(10)	.998	.999	.047
	이차곡선변화	19.595(6)	.999	1.000	.026
학업성취	무변화모형	1297.054(13)	.956	.974	.203
	선형변화모형	441.878(10)	.981	.981	.134
	이차곡선변화	37.126(6)	.997	.999	.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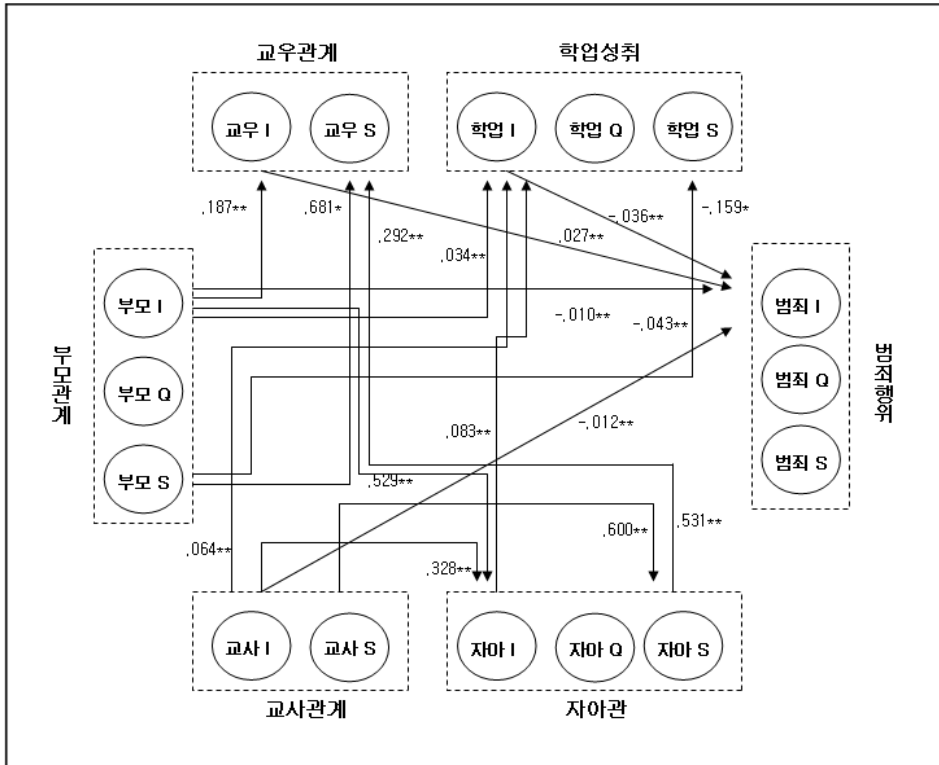
(1) 지위비행과 범죄행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앞선 요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아관, 부모관계, 학업성취, 교사관계, 교우관계 그리고 청소년 지위비행 간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지위비행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그림 3에는 설정한 모형의 간명성을 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p < .05$, ** $p < .001$ /I: 초기치, S: 변화율, Q: 이차곡선) 경로만을 표현하였다. 청소년들의 범죄행위요인에 대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결과 또한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리고 각각 지위비행 및 범죄행위 모형의 적합도는 표 14와 같다.



[그림 4] 범죄행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표 14>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표

모형	χ^2	TLI	CFI	RMSEA
지위비행모형	2912.901(394)	.991	.992	.043
범죄행위모형	3131.218(394)	.991	.992	.045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지위비행의 경우, 모든 변인들의 초기치가 지위비행의 초기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종속변인과 관련된 다른 경로 즉, 변화율과 이차곡선요인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범죄행위의 경우 지위비행과 유사한 패턴의

영향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범죄행위의 초기치에는 부모관계,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업성취가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 지위비행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범죄행위의 초기치는 교우관계에 의해 정적으로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 대한 교사와 학교 그리고 학부모에 의한 생활지도와 상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위비행 및 범죄문화와 관련된 접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2003년도(1차)~2007년도(5차)의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비행의 초기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기존 횡단연구 설계의 구조적인 제약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생의 내·외적인 특성이 횡단적인 측면에 의해 형성되거나 단선적인 차원에서 구성되지 않음을 고려하면서 청소년들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와 관련된 변인들의 종단적인 변화를 추적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이는 종단적 분석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와 변화 간에 영향 관계를 탐색하는데 주요한 기여를 해주었으며, 지위 비행과 범죄행위와 관련된 횡단적 이해의 폭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물론 최근 정소희(2009)와 박현수(2011) 등과 같은 연구자들에 의해 패널 자료를 활용한 종단적인 분석이 시도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그들의 연구를 확장함으로써 의의를 지닐 수 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지위비행과 범죄행위로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소희의 일괄적인 종속 변수의 모형을 다양화 하였으며, 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종속변수의 시간적 변화와 발달을 고려한 종합적인 탐색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 청소년들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는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는 특별히 이차곡선적인 특징을 나타내었다. 또한 각각의 모형 모두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이 부적으로 나타나 초기년도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자의 크기가 높을수록 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요인의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예측변인을 포함하는 분석에서 청소년 지위비행의 경우 가정수준의 부모관계가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학교수준의 교사관계와 학업성취는 지위 비행의 초기치에만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교우관계는 각각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소년 범죄행위의 예측변인을 포함하는 모형 분석에서는 개인수준의 자아관이 초기치에, 가정수준의 부모관계가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학교수준의 교사관계와 학업성취가 모두 초기치, 변화율, 이차곡선 요인 모두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우관계는 초기치, 변화율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예측변인을 포함한 잠재성장모형이 특정한 생애 시기에서의 청소년들(중2 패널)의 급격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지 못하기에 예측변인으로 투입된 변인들의 생애사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청소년 비행 변화와의 종단적인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지위비행의 경우, 모든 변인들의 초기치가 지위비행의 초기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종속변인과 관련된 다른 경로 즉, 변화율과 이차곡선요인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범죄행위의 경우 지위비행과 유사한 패턴의 영향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범죄행위의 초기치에는 부모관계,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업성취가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 지위비행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범죄행위의 초기치는 교우관계에 의해 정적으로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청소년들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에는 교우관계가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 형성에 있어 또래집단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비행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들의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지위비행과 범죄행위에 있어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며, 청소년들의 역기능적인 활동을 경감하는 대책으로서의 또래관계의 지원과 상담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나 Sampson과 Laub(1993)을 제시된 사회적 유대의 결과로서의 비행의 의미를 고려할 때 해당 청소년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김경식과 이현철(2007)도 비행청소년들과의 접촉 혹은 관계의 질의 중요성을 제시한 선행연구와도 일치하고 있어 Sampson과 Laub(1993)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기능적인 관계성 회복에 집중하며 비행청소년들과의 접촉 빈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응전략이 구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 자아관, 부모관계, 교사관계, 학업성취 등은 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즉, 부모, 교사, 학업성취가 우수하며 건강한 자아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비행 및 범죄를 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위 '모범생'이라고 일컬어지는 학생들의 생활태도와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의 차이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또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청소년들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에 있어 교우관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비행하위문화이론이나 문화전달이론들과 일맥상통하여(김경식, 이현철, 2007) 청소년 비행 예방 및 대응전략을 구성하는데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해 준다 하겠다. 더불어 학생들에 대한 교사와 학교 그리고 학부모에 의한 생활지도와 상담 및 또래상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위비행 및 범죄문화와 관련된 접촉을 줄일 것을 요구하며, 학생들이 교사와

학부모들 간의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시급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그들의 양육태도와 방식이 청소년들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정소희, 2007), 교사들은 학교 내 사회적 관계성의 핵심적인 존재임을 잊지 말고 청소년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경식, 이현철 (2007). 청소년 비행의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7(2), 53-76.
- 김두섭, 민수홍 (1996).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범죄억제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미선 (2014). 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영옥 (2004). 인터넷 음란물 접촉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른 성비행과 정신건강 연구. *상담학연구*, 5(4), 1139-1153.
- 문상식, 문재우 (2011).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대한보건연구*, 37(2), 1-15.
- 문화일보 (2012). 또래 갈취하는 교문 밖 가출 청소년들..... 학교폭력 사각지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208135111685>에서 검색.
- 박진희, 김현주 (2012). 청소년 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성차. *청소년복지연구*, 14(3), 75-96.
- 박현수 (2011). 청소년 비행의 변화유형과 영향요인. *범죄와 비행(창간호)*. 165-187.
- 송아영, 박경나, 정세정 (2009). 청소년지위비행에 대한 일반긴장이론의 부분적 검증: Ping의 2단계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1), 309-337.
- 송정희, 신원섭, 연평식, 김운수, 조영민, 김주연, 손성애, 신경희 (2012). 산림 치유 캠프가 학교폭력피해 청소년의 심리안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6(3), 109-115.
- 오운심, 최은영 (2012). 자아존중감과 부모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문제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6(2), 15-29.
- 윤정숙 (2012).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 법무부.
- 이기봉, 박일혁 (2001). 중단적 운동수행력의 변화 분석: 잠재성장모형의 이용. *한국체육학회지*, 40(2), 885-897.
- 이하섭, 조현빈 (2011). 청소년범죄에 대한 경찰활동.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7), 285-297.
- 장애경, 이지연 (2010). 청소년의 모애착과 우울,불안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8(4), 21-30.
- 정소희 (2007).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부모양육행동, 자아통제력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분석. *사회복지연구*, 32, 5-34.

- 정소희 (2009).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0(2), 31-64.
- 정혜원, 박윤환 (2012). 신 비행지표 활용을 통한 청소년비행에 대한 무단결석의 역할 분석: 학교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20, 269-305.
- 최성열 (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성현 (2010).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비행이론 비교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49-68.
- 황성현 (2012).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대한 상호작용론적 연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청소년학연구* 19(10). 23-43.
- Bollen, K. A., & Curran P. J. (2006). *Latent curve models*. WILEY, John Wiley & Sons, Inc.
- Clark, D. B., De Bellis, M. D., Lynch, K. G., Cornelius, J. P., & Martin, C. S. (2003). "Physical and Sexual Abuse Depression and Alcohol Use Disorders in Adolescents: Onsets and Outcome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69, 51-60.
- Demuth, S., & Brown, S. L. (2004).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es, and adolescent delinquency: The significance of parental absence versus parental gend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1), 58-82.
- Horwitz, A. G., Hill, R. M., & Cheryl, K. (2011). "Specific coping behaviors in relation to adolescen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Adolescence*, 34(5), 1077-1085.
- Sampson, R. J., & Laub, J. H. (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enna, J., & Lawwy, S. (2000). *Juvenile delinquency: Theory, practice and law* (7th ed.). Stamford(CT): Wadsworth.

The Longitudinal Analysis on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inal Behavior of Korean Youth

Lee, Hyun-chul

Kim, Kyung-Sik

Choi, Sung-Bo

Kosin Univers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inal behavior of Korean youth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MLGM), the data was the 1st(2003)-5th(2007) wave of the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The results are report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inal behavior of the youth in Korea is decreased with quadric transformations. Second, analysis of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s shows that teacher rel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foun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on the intercept and slope of juvenile delinquency. Third, self-esteem and parents rel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rcept, slope, and quadric of criminal behavior model. Finally, peer relation foun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on the intercept and slope of criminal behavior.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self-esteem, parent's relation, teacher rel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were impact factors on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inal behavior and educator considered these variables in counseling process of school or juvenile fields.

Key words: juvenile delinquency, criminal behavior, longitudinal analysis, peer relation, counseling

